부산시, 해양 LED 메카로 부상

부산이 해양·수산 분야의 LED(발광다이오드)조명 융합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한국 해양대학교의 <첨단 마린조명 연구센터>가 지식경제부의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돼 2012년까지 총 35억4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4월6일 밝혔다.

해양대는 앞으로 해양·수산·선박용 LED 모듈과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연평균 15명 이상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부산시는 해양 LED조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관련기업의 투자유치,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지원, LED 벤처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LED 및 응용산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30%에 달해 2015년에는 국내시장 규모가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해양·수산 분야도 응용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LED 조명은 빛의 밝기와 파장 등을 조절해 어패류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고 해안이나 해변공원 등에 특정 어류를 유인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어 수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학저널 2009/04/06>